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이사야 6,1-2 7.3-8

화답송



(후렴)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1코린토 15,1-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복음 | 루카 5,1-11

영성체송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성가 | 입당성가 55 1~2절 예물준비 215
 영성체 455 파견 39 1~3절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효경	이성수 미카엘
엄상원의 부친 엄석렬 사도요한	엄상원 다니엘
양남석 이정님	양미숙 마리아
생미사	봉헌
이웅희 루카 신부	맨하탄 한인성당 모든교우
이웅희 루카 신부	재속프란치스코 뉴욕 형제회
이웅희 루카 신부	이영애 레지나
제67차 성령세미나에 참석할 모든분	성령기도회
강명옥 프란치스코	김민경 로사
이흥규 요한	이미숙 안나
함승연 마르타	민재인 데레사
이영노 율리안나	민재인 데레사
임금중 주현경 영육건강	익명
조귀숙 마꼬리나 생일축하	허인선
이한샘 아우구스티노 생일축하	허인선
문홍빈 안셀모	가족
이진우 다니엘 가정	이그렝 클레멘스
조은비 베로니카	장은솔 사비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2월 9일	정유진	민완준	김승연	김승연	김종선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2월 16일	백이백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이영혜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이우희 루카 신부님, 마음모아 환영합니다~
오늘 09:15 환영미사



평화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축복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한국 순교성인 관구 이우희 루카
신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와 찬미, 영광과 흠송을 드립니다.
아마도 오묘하신 하느님께서 형제자매님들과 친교를
잘 나누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포지오
부스토네'라는 곳을 방문하여, 복잡 다양한 세상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이끌
어내기 위하여 첫 인사말을 건네기를..

"안녕하세요. 선한 사람들!"

(Buon giorno bona gente 본 조르노 보나 젠테)

이라고 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맨하탄 성당에서 신앙 여정을 가시는 동안 늘 주님의 선함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혹시 안 기쁘신 분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드리
겠습니다. 하하^^ ☺ **본 조르노 보나 젠테!**



2025년 2월 9일,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한인담당 이우희 루카 OFM 신부 올림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 13:2

▶오늘 연례회

연도: RIP. 남혜순 카타리나, 남정희 아녜스, 남승례 아가다

▶미동북부 제 67차 기초성령세미나에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13(목)5pm~2.16(주일)5pm 뉴튼수도원

강사: Frs. 곽도윤, 황필구, 곽연진

참가비: \$290(식사 및 숙박포함) 교재비: \$15

신청: 민재인기도회장 (917)929-4242

▶청년 성서모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첫모임: 2.16(일) 12시. 다미안홀 참석필수
대상: 세례받은 청년 신청마감: 2.9(일)
문의: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카톡: sunwouk (714)809-9874

▶청년 겨울캠프

장소: Tannersville, NY 일정 : 2.14~16(2박 3일)

참가비: \$190(non-refunable depsit; \$120

(스키 리프트 및 렌탈은 별도) **마감**

▶청년 겨울피정

일정: 3.15~16(1박 2일). 참가비: \$130. 뉴튼수도원. **마감**

▶마르코 복음 필사 완료하신 분

예비신자 남승연, 예비신자 정서원 축하드립니다~☺

▶성지(聖枝) 회수

2024년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를 회수합니다. 2/23(주
일)까지 사무실로.

▶성경을 읽기 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 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장 간단한 우리의 기도문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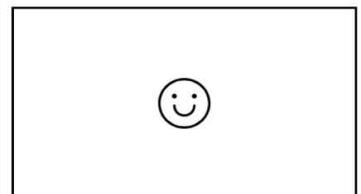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미사지향에 관하여

연미사, 생미사 봉헌 :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 하는 마음 표현의 방법

미사는 신앙공동체의 가장 큰 기도로써, 가족 안에서나 본당 단체에서 특별히 기리고픈 사람들이 있다면 미사 지향을 올림으로써 함께 정성되어 미사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가톨릭 신앙문화에 따라 소중한 이들을 의미 깊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사 지향의 의미 새기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가 기도를 통해 상호 간 공로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사도신경의 '성인들의 통공(通功)'을 통해 고백한다. 천상 교회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며 바치는 전구(轉求) 기도, 연옥 영혼들을 위한 연미사 지향 및 지상 교회의 서로를 위한 생미사 지향을 올리는 것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사 예물을 바치는 것은 마음의 표현으로, 이를 통해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교회법 946조)하게 된다. 따라서 미사 예물을 바치며 지향을 청하는 것은 교회 활동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는 일이며, 우리가 더욱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에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 지향 시기 선정하기

가족 구성원의 생-축일에는 생미사를, 세상을 떠난 가족의 기일이나 축일에는 연미사를 함께 봉헌하는 등 가족의 삶에 맞는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위령성월에 있는 연도 및 위령미사에 참례하거나, 설, 한식, 추석 등의 명절을 맞아 가족이 다함께 합동위령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더욱 감사히 여기게 되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족의 신앙을 더 탄탄히 다져나갈 수 있다.

소그룹 모임이나 활동 단체 안에서도 서로의 생.축일이나 같이 기념해야 하는 특별한 날에 생미사를 청하고 모임 전후에 함께 미사에 참례한다면 의미 있는 기억을 나누며 상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가 병환 중이거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시험이나 관문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함께 축하할 경사가 있을 때에도 생미사 지향을 올릴 수 있다.

본당 사무실 신청 후 정성을 담아미사 참례하기

본당별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에 봉헌금을 넣고 봉투 겉면에 지향과 신청자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향이 접수된다. 신청한 미사 일시에 맞추어 사제는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과 마음을 모아 그 지향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한다. 지향에 함께 하는 공동체에 감사하며 정성스레 미사에 참례한다.

*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기억하고, 또 세상을 떠난 이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새기며, 그 기도를 미사 지향으로 담아내는 것은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가치로운 것을 가치있게 준비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가족과 교우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준다면, 가톨릭 신앙 문화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체험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희년 기도

미사 전 일어서 합송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